

## 대학생 인문역량 자가진단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김지원\*·박영신\*\*·양길석\*\*\*·김경이\*\*\*\*

### 〈목 차〉

I. 서론	V. 결론 및 제언
II. 이론적 배경	참고문헌
III. 연구 방법	<Abstract>
IV. 연구 결과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기관 및 대학생들이 대학생 인문역량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는 것이었다. 문항 개발 단계에 앞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대학생 핵심역량들의 개념들과 중첩되지 않도록 대학생 인문역량과 그 하위요인들을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62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C대학교를 중심으로 학부 재학생 426명이 참여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 수정 과정을 통해 30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예비조사에서 구성된 30개 문항에 대한 타당화를 위해 640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한 다음, 탐색적 요인분석, 내적합치도를 통한 신뢰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확정된 문항의 양호도를 확인하였다. 공인타당도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1,237명에게 대학생 역량평가를 실시한 뒤, 학생들의 대학생 핵심역량 평가 점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문역량 평가도구의 학생 전공별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도구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대학생 인문역량 평가도구에서 정의된 총 3개 요인인 성찰역량, 심미역량, 리더십역량의 구성 요인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총 3개 요인으로 구성된 30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양호하며 구성타당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뢰도 계수는 .96으로 나타났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모든 부합도 지수들이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학생들

\* 제1저자: 가톨릭대학교 교육혁신데이터센터 선임연구원.

\*\* 공동저자: 가톨릭대학교 교육혁신데이터센터 책임연구원.

\*\*\* 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교직과 부교수.

\*\*\*\* 공동저자: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이 스스로 본인의 인문역량 수준을 스스로 측정해볼 수 있도록 개발된 대학생 인문역량 자가진단 평가도구는 분석 결과를 통해 타당한 평가도구임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타당화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인문역량 자가진단 평가도구가 지니는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 인문역량, 성찰역량, 심미역량, 리더십역량, 대학생 핵심역량

## I. 서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과 함께 우리 사회는 기존에 경험할 수 없었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였다. 전통적인 교육 모델은 예측이 가능했던 사회를 전제로 하여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기존의 정보와 지식으로 예측이 곤란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교육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고등교육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즉, 대학교육 현장에서의 현안 문제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정윤경, 정연재, 정기섭, 2019).

이렇듯 불확실하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는 지식의 축적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 획득될 수 있고 평생에 걸쳐 개발될 수 있는 역량(competency)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게 되었다(소경희, 강지영, 한지희, 2013). 역량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나 태도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진미석, 손유미, 주휘정, 2011). 역량은 주로 기업적 맥락에서 경쟁우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보편화되었으나(이장익, 김주후, 2012; Prahalad & Hamel, 1990), 최근에는 특정 직무나 업무 맥락을 넘어서 개인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요구되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소경희, 2009). OECD(2005)의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DeSeCo) 프로젝트는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사회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생애 핵심역량을 제안하였고 역량의 의미 범위는 직무 중심에서 개인의 삶과 국가 차원의 발전으로 확대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핵심역량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기 시작했고, 많은 국가들은 OECD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필요한 지원 시스템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대학에서도 핵심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단순히 학문 중심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새로운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특히 인문학(humanities)은 4차 산업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학문으로 인문학적 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게 되었다. 인문학은 특정 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자율성과 주체성을 갖춘 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보편적이고 내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정윤경, 정연재, 정기섭, 2019).

이에 정부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CORE)을 통해 기초 학문인 인문학을 보호 및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문계열 학생들을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융복합적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대학에서도 인문사회 분야에서 다양성 및 전공 간의 협력과 융합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청에 대응해왔으며, 2016년도부터 CORE 사업을 통해 인본 가치 인문학 구현, 사회 수요 기반 실용적 인문학 육성, 세계와 소통하는 인문학 기반 구축에 힘을 써왔다. 이를 위해 C대학에서는 인문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문 생태계 변화에 따른 인문학의 사회적 적합도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융합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이와 같이 대학 내 인문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인문역량을 평가 및 진단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량 기반의 인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서 획득한 인문역량의 정도와 수준을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는 인문역량에 특화된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많은 대학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대학생 핵심역량들과의 개념적 중첩을 지양하면서 인문 및 인문학의 정의에 기반하고 평가도구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량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인문역량은 다양한 세부 역량으로 구분되거나 명명되고 있지만, 나,

너, 우리(사회,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과 느끼는 능력, 그리고 표현 능력의 세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인문역량을 정의하였으며, ‘인문학적 기초 소양’ 또는 ‘인문학적 기초 역량’의 의미를 내포하였다. 이렇게 자체 개발한 인문역량 진단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C대학교 학생들의 인문역량 수준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인문 교육과정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인문학적 인재 양성은 물론 인문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대학생 인문역량의 개념과 의의

일반적으로 역량은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역량의 개념은 White(1959)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고, McClelland(1973)에 의해 성공적인 직무 수행에 대한 예언적 요인으로써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역량은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행동, 가치, 태도를 포함하는 능력으로 간주되어 주로 기업 교육이나 직업 교육적 맥락에서 사용되어 왔다(소경희, 2009).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으로 인해 지식을 활용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것으로 창출하는 능력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대학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한 능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 전생애 걸쳐 개발하고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대안으로써 역량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로써 역량의 개념은 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능력에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하는 능력,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는 모든 사람이 양질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역량의 개념을 도입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연구는 OECD(2005)의 DeSeCo 프로젝트로 OECD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의 성공적인 삶의 질과 국가 발전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규명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직무 관련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역량의 개념은 개인과 국가의 성장과 관련된 포괄적인 의

미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현재 많은 국가들이 OECD에서 발표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기 위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내 교육 현장에서도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 전달에서 역량 배양 접근으로 초점을 옮겨 역량기반 교과 개발 및 적용에 힘쓰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 차원에서 각 대학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등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교육에서 지향하는 대학생 핵심역량은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하고 변화가 심한 사회 환경 속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태도, 지식, 기술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을 말한다. 그에 따라 대학에서는 문제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문학은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예술, 어학 등의 문화를 다루면서 인간다운 삶에 대하여 성찰하고 탐구하는 학문 분야를 말한다. 인문학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인문학은 궁극적인 관심이 인간에 대한 이해와 탐구에 있다는 점에서 자연과학, 그리고 사회과학과도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백승균, 2000). 비록 근대 이후의 인문학은 제도적 측면에서 인문대학 내의 분과학문으로써의 성격이 강화되었으나(최성환, 2007), 품격 높은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 바람직한 삶을 위한 실천성과 같은 인문학의 전통적인 역할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정연재, 주소영, 2019). 인문학적 성찰은 무엇이 실용적인지를 판단하고 실용적인 가치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적용하는 방안을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박영주, 2017).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학이 대처하기 위한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IoT, 유전공학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다. 많은 대학들은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중심적인 교육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나, 현재의 과학기술은 더 나은 지

식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변화의 속도에 맞춰 교육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실질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개발과 활용은 결국 인간 가치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혁신과 더불어 인간적 가치 구현 간의 균형을 맞추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송은주, 2019).

교육적 관점에서 인문학은 현실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인문학은 자유의 경험, 통찰의 획득과 같은 비판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인간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문적 지식 습득에 국한되지 않고 인문학적 가치를 일상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실천으로써의 삶에 중점을 둔 인문학이 필요하다(김희복, 김희주, 2019). 인문학은 미학적, 도덕적, 지적 감수성과 반성적 비판력을 길러 준다(정대현 외, 2000). 이러한 인문학에 바탕을 둔 인문교육이란 학생들이 인간다운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세계시민으로서 삶의 자세와 보편적 문화를 지향하는 안목을 키워주고 자유로운 지적 성찰과 비판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인문역량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인문교육의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인문교육의 결과로써 드러나야 할 인문역량은 인문학적 가치들을 삶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희복, 김희주, 2019). 인문역량(humanities competency)이란 자유, 자율성, 비판적 사고 등과 같은 인문학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들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김우영, 이병승, 2013; 김희복, 김희주, 2019). 전인교육으로써의 인문학은 인간 자신과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해, 사람다운 삶에 관한 성찰과 이에 대한 실천을 목적으로 하며, 인문학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게 된다(박영주, 2017).

## 2. 국내 대학생 인문역량 평가도구 개발 현황

성인의 삶을 준비하는 단계인 대학생 시기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개발한 핵심역량 진단도구는 대부

분 영역 일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대학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이념과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진영, 정기수, 2017). 또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인문교육의 성과를 객관적 지표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인문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역량을 특수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진단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각 대학에서는 인문학 진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으나, 대학교육을 통해 육성되어야 할 인문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생의 인문역량을 측정한 연구의 대부분은 대부분 핵심역량 진단도구의 하위요인으로 전반적인 내용의 인문역량을 분석하였다. 가령 김은주, 성명희(2016)의 연구에서 측정된 인문학적 역량은 해당 대학에서 개발하고 타당화한 핵심역량의 하위요인으로써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특정 전공 분야의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개별 인문역량들에 초점을 맞춰 측정하는 진단 평가도구들도 개발되었다. 송미옥, 김희영(2018)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성찰 및 통찰력 측정도구를 타당화하였다.

인문역량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로는 김희복, 김희주(2019)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인문역량을 인문학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개인의 역량으로 정의하였고, 4차 산업 사회 체제의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인문학적 가치인 자유, 공감, 정의, 신뢰를 구현하기 위한 개인의 인문역량으로 성찰, 소통, 비판, 협업을 제시하였다. 정연재, 주소영(2019)은 역량의 관점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인문학적 소양이란 심미적 감성, 자기성찰, 비판적 사고, 상상력, 창의성, 문화 및 종교, 역사·의식에 대한 학식과 견문을 통해 인간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는 개인 내적 바탕을 의미한다. 인문학적 소양 측정도구는 문학, 철학, 역사, 예술, 종교 및 문화의 5개 영역으로 범주화되어 있으며, 그 구성요소로 자기이해, 정서적인 공감, 서사적 상상력, 비판적 사고, 행위의 정당화와 동기화, 역사·의식, 관점형성능력, 미적 감수성, 표현능력, 타문화 및 종교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고 있다. 이경숙, 이상욱, 박민아(2020)는 자아정체성, 소통, 미래적응의 3대 핵심축 각각에 대해 3개의 하위 인문역량을 설정하여 총 9개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된 인문역량 검사도구를 개발하였고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정체성 축에 속하는 요소 역량으로는 자아탐색, 매체표현, 인문창의가 포함되었으며, 소통 축은 분야횡단, 혼성적 학습, 유연한 협력으로 구성되었고 미래적응 축은 글로컬 수행 능력, 혁신적 리더십, 미래 디자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도 대학 내 인문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려는 흐름 안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인문역량을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된 자가진단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었다. C대학교 CORE사업단에서는 인문역량 진단도구 개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인문역량 진단도구에 대한 문항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 연구위원회에서 개발한 인문역량 진단도구 문항들을 타당화하고 그 도구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인문역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 먼저 인문역량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구성하는 하위역량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인문(人文)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및 인간의 문화를 칭하는 것으로, 인문학(人文學)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써 직관, 체험, 표현, 이해, 해석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며 어학, 문학, 철학, 종교학 등에서 관련 문화를 다루면서 인간다운 삶에 대해 성찰하고 탐구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인문교육(人文教育)은 인간다운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는 동시에 세계시민으로서 삶의 자세와 보편적 문화를 지향하는 안목을 키워주고 자유로운 지적 성찰과 비판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교양학의 핵심 영역을 차지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인문, 인문학, 인문교육의 정의에 따를 때 인문역량은 그동안 대학생 핵심역량으로 제시된 다양한 역량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학생 인문역량 평가도구의 문항을 개발할 때 대학생 핵심역량 평가도구와 중첩되지 않으면서도 인문학과 인문교육의 고유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저역량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향 설정과 목적에 따라 인문역량의 하위요인으로 성찰과 심미, 리터러시를 설정하였다. 인문학은 인간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부단한 사고의 과정으로서 성찰을 필수 요소로 하며, 정신적 산물로서의 문화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인식하는 과정인 심미, 그리고 성찰과 심미에 게재될 수밖에 것이자 성찰과 심미의 핵심 매개가 되는 인간의 상징체계에 대한 이해·



해석·활용 등의 능력인 리터러시를 기본 속성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성찰역량은 시·공간에 위치한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문화현상에 대해 분석, 해석하고 그 의미를 숙고하여 보다 나은 수준으로 발전 개척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성찰성이란 자아, 타자, 나아가 사회를 깊이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정윤경, 정연재, 정기섭, 2019). 인간은 자기 삶의 주체임과 동시에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생활한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에 걸쳐 생활해 온 양식을 성찰하고 비판하면서 보다 나은 삶과 세상을 꿈꾸게 된다. 성찰역량이란 나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 인류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더 나은 미래 사회와 세계를 만들어나가려는 비판적 사고력과 실천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아에 대한 성찰력, 사회와 세계에 대한 비판력과 책임감,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실천력 등을 진단하는 문항들로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심미역량은 사물과 대상에 대해 아름다움을 느끼고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현시킬 수 있는 감성과 심미안을 갖춘 문화인으로서의 능력을 의미하였다. 심(審)이란 모든 사물의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을 말하며, 미(美)란 희열에 이르게 하는 특정 대상에게서 오며, 그 대상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끼고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정신세계를 고양시키고 발전시켜나간다. 따라서 심미역량이란 자연, 사람, 사물, 현상과 같이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에 대해 아름다움이나 추함을 느끼고 인식하며 이러한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이라 정의하고, 평가도구에서는 주변의 사물과 현상에 대한 감수성, 문학과 예술을 감상하는 태도, 문학과 예술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등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리터러시역량은 언어, 이미지, 숫자, 컴퓨터 등을 이해하고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필요한 여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문식역량을 의미한다. 리터러시의 사전적 의미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리터러시의 일차적 의미는 단순히 문자를 해독하는 가장 초보적인 기능을 가리킨다. 최근에는 그 의미가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의 내적 과정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Wray, 2004),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나 맥락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으로 확대되었다(한상우, 2018). 인간은 언어, 기호 등을 통해 세계를 파악하고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며, 다양한 의

미적 연관을 구성하고 해석하여 인류 문명화 문화를 일구어나간다. 언어나 기호는 인간이 세계를 파악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의미 세계로서의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다. 따라서 리터러시역량이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텍스트에서 의미를 분석, 비판하고,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하며, 텍스트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평가도구는 텍스트 분석 및 비판, 텍스트를 통한 필자와 독자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력, 의사소통을 통해 축적되는 문화적 공동체 역량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C대학 CORE사업단에서 수행된 인문역량 진단도구 문항 개발 연구를 통해 구성된 문항들에 대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대학생들의 인문역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인문역량 진단도구를 개발하였고, 마지막으로 인문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통한 대학생들의 인문역량 수준을 분석하였다. 인문역량 진단도구는 총 3개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손쉽게 본인의 인문역량 수준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기 보고 형태의 5점 리커트 측정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C대학교 대학생 인문역량 자가 진단 평가도구 개발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단계 연구위원회를 통한 ‘문항 개발’, 2단계 타당화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 3단계 진단도구의 최종 타당화를 위한 ‘본조사 및 타당화 연구’의 3단계 연구 절차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도구의 최종 타당화를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공인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준거 관련 변인(대학생 핵심역량)과의 상관분석과 집단 평균 비교 분석이 실시되었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는 426명이었으며, 본조사 참여자는 640명이었다. 최종 타당화를 위한 대학생 역량평가에 참여한 학생 수는 총 1,237명이었다.

문항 개발 단계에서는 연구위원회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대학생 인문역량을 정

의하고 이를 구성하는 하위역량들을 반영하여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충분히 개발하고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확보한 문항들을 이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통해 변별력이 낮은 문항들을 삭제하고 일부 문항을 수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본조사 및 타당화 단계에서는 새로운 표본을 확보하여 예비조사 단계를 통해 도출된 문항들을 사용하여 평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조사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문항 수정 및 보완작업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도출된 문항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 1. 문항 개발

C대학의 CORE사업단은 문항 개발 단계에서 문학, 역사, 철학, 교육학 분야의 전문가 7인으로 인문역량 진단도구개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문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먼저, 연구진은 문헌 고찰을 통해 인문역량을 성찰역량, 심미역량, 리더러시역량으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대학생 핵심역량 개념들과 중첩되지 않으면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인을 설정하였고 각 하위역량의 정의를 잘 반영하여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연구위원회에서 1차로 추출한 71개 예비문항들에 대하여 안면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 전공 6명의 학생(국사학전공 2명, 중국언어문화전공 3명, 사회복지학전공 석사과정생 1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위원회에서 도출된 전문가 집단의 검토 의견과 안면타당도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예비검사용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3개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된 총 62개의 예비문항이 선정되었다.

## 2.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문헌 분석 및 전문가 검토 절차를 통해 도출된 62개 문항들이 실제로 대학생 인문역량의 각 하위역량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진행되었

다. 예비검사는 2017년 5월 29일부터 2017년 6월 2일까지 C대학교 재학생 총 426명을 대상으로 62개 예비문항에 대한 자료를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학생들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67명(39.2%), 여학생이 259명(60.8%)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 48명(11.3%), 2학년 110명(25.8%), 3학년 154명(36.2%), 4학년 114명(26.8%)으로 나타났다. 예비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IBM SPSS 21.0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들과 연구위원회의 견 검토를 통해 3개로 구성된 하위요인이 충분한 이론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요인의 수를 3개로 지정하였으며, 부하값이 .40 이하이거나 두 개 이상의 요인에 걸쳐 있는 문항들을 제거해나갔다. 반복적인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하위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들을 제거 및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성찰역량, 심미역량, 리터러시역량의 총 3개 하위요인으로 측정하는 30문항이 인문역량 진단평가의 최종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최종 개발된 인문역량 하위요인들의 문항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대학생 인문역량 진단도구 평가도구 문항 내용

요인	주요 문항 내용	문항수
성찰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책임감을 가지는 정도</li> <li>• 자아에 대한 성찰력</li> <li>• 사회와 세계에 대한 공감력과 비판력</li> </ul>	11
심미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참여, 창작하는 정도</li> <li>• 주변 사물과 현상에 대한 공감 및 문화과 예술 감상 태도</li> <li>• 문화과 예술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li> </ul>	10
리터러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텍스트의 배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분석 및 판단하는 능력</li> <li>• 텍스트 분석력, 비판력, 창의력</li> <li>• 텍스트를 통한 필자와 독자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력</li> </ul>	9

### 3. 본조사 및 타당화 연구

예비조사를 통해 도출된 진단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조사 및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조사는 2017년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C대

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총 640명이 본조사에 참여했으며, 남학생이 206명(32.2%), 여학생이 434명(67.8%)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80명(28.1%), 2학년 162명(25.3%), 3학년 153명(23.9%), 4학년 145명(22.7%)으로 나타났다. 본조사 참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2>에 제시되었다. IBM SPSS 21.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평가도구의 이론적 구성요인을 확인하였고 문항들의 내적합치도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3개 요인 평가도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0.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단위 : 명, %)

구분		본조사 및 타당화 연구 (N=640)	준거 관련 타당도 분석			
			CORE 융복합 전공 (N=146)	인문계열 전공 (N=287)	인문계열 외 전공 (N=950)	전체 재학생 (N=1,237)
성별	남자	206(32.2)	45(30.8)	87(30.3)	303(31.9)	390(31.5)
	여자	434(67.8)	101(69.1)	200(69.7)	647(68.1)	847(68.5)
학년	1학년	180(28.1)	-	93(32.4)	438(46.1)	531(43.0)
	2학년	162(25.3)	55(37.6)	68(23.7)	216(22.7)	283(22.9)
	3학년	153(23.9)	40(27.3)	51(17.8)	140(14.7)	191(15.5)
	4학년	145(22.7)	51(34.9)	75(26.1)	156(16.4)	231(18.7)
계열	인문	204(31.9)	59(40.4)	287(100.0)	-	287(23.1)
	사회	233(36.4)	38(26.0)	-	566(59.6)	566(45.8)
	자연	104(16.3)	17(11.6)	-	148(15.6)	148(12.0)
	공학	99(15.5)	32(21.9)	-	236(24.8)	236(19.1)

#### 4. 준거 관련 타당도 분석

공인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2018학년도에 대학생 인문역량과 핵심역량 평가에 참가한 학생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C대학 대학생 역량 진단평가를 통해 1,240명의 재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1,237명의 자료

가 타당화를 위한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진단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390명(31.5%), 여학생 847명(68.5%)으로 여학생의 수가 더 많았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전체 43.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계열별로는 사회계열이 전체 45.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C대학에서 CORE 사업 일환으로 운영된 CORE 융복합 전공 과정 학생들의 평가 점수와 일반 재학생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진단 참여 학생들 중 CORE 전공 및 인문계열 학생들의 점수를 분석하고 평균을 비교하였다. 학생들의 성별, 학년 및 계열 분포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 IV. 연구 결과

### 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최종 확정된 30개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식은 주성분 분석법과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하여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개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60.90%였으며, 각 하위요인의 설명변량을 살펴보면 요인1에 해당하는 심미역량은 21.04%의 설명량을 가지고 있었고, 요인2에 해당하는 리터러시역량은 20.32%, 요인3인 성찰역량의 설명량은 19.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문항의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성 지수는 .955로 값이 크고,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또한 유의하여( $p < .001$ ) 매우 양호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인문역량 문항의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심미역량 .93, 리터러시역량 .94, 성찰역량 .91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전체적으로 .91~.94 범위로 신뢰도 수준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문역량 진단도구는 문항의 동질성이 확보된 평가도구라고 판단해볼 수 있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대학생 인문역량을 구성하는 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 간에 .46에서 .60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체 점수와의 .80이상의 높

은 상관과, 전체 구성 요인 간 상관이 .60이하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요인들이 상호 간에 적절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문역량 각 요인 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는 <표 4>와 같았다.

<표 3> 인문역량 최종 30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N=640)

문항 내용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심미1] 나는 대화할 때 문화예술과 관련된 내용의 비중이 높다.	.81	.22	.06
[심미2] 나는 평소에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탐색하고 배우려 한다.	.78	.31	.16
[심미3] 나는 관심 있는 문학, 영화, 연극, 음악, 공연, 미술전람회 등을 정기적으로 감상하는 편이다.	.77	.22	.10
[심미4]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글, 사진, 그림, 음악 등으로 표현하곤 한다.	.74	.09	.21
[심미5] 예술 활동(예: 글짓기, 시쓰기, 그림그리기, 노래하기, 연주하기 등)을 즐겨한다.	.73	.09	.25
[심미6] 문학과 예술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은 나의 삶에 의미 있는 일이다.	.72	.20	.35
[심미7] 영화, 연극, 공연, 미술전람회 등을 즐겨본다.	.72	.19	.21
[심미8] 문학과 예술을 감상하며 느낀점을 기록한다.	.71	.16	.05
[심미9] 나는 새로운 문화 예술 현상에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68	.28	.24
[심미10] 문학, 영화, 연극, 음악, 공연, 미술전람회 등의 감상이 나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67	.23	.36
[리터러시1] 나는 하나의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의 상호관계를 알고 그 의미를 서로 비교 연결할 수 있다.	.28	.75	.25
[리터러시2] 나는 텍스트를 이해함에 있어 필자와 나 사이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28	.74	.25
[리터러시3] 나는 텍스트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24	.74	.34
[리터러시4] 나는 텍스트의 중요한 부분에서 좋은 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평가할 수 있다.	.18	.74	.38
[리터러시5] 나는 여러 지식들을 비교, 수정,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	.26	.73	.30
[리터러시6] 나는 텍스트가 만들어진 중요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29	.73	.22
[리터러시7] 나는 텍스트에서 정보를 찾아내고, 그 정보에 대한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14	.70	.43

문항 내용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리터러시8]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찾은 정보에 대해 믿을만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	.14	.70	.32
[리터러시9] 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자, 숫자, 기호, 도표, 그림,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22	.65	.33
[성찰1] 나는 계속하여 변화한다고 생각한다.	.13	.19	.76
[성찰2] 나는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산다.	.06	.25	.71
[성찰3] 나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생활하려고 한다.	.17	.26	.71
[성찰4] 나는 제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종종 점검해 본다.	.17	.26	.70
[성찰5] 나에게 닥친 일의 원인과 결과를 다각도로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20	.39	.64
[성찰6] 사회적으로 경쟁보다 더불어 사는 삶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23	.26	.62
[성찰7] 도덕성, 인간존중과 같은 정신적 가치가 물질적 재화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21	.19	.61
[성찰8]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다.	.20	.39	.58
[성찰9] 작은 노력으로도 사회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1	.24	.55
[성찰10] 나는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세계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29	.32	.54
[성찰11] 역사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현 사회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4	.40	.53
초기 고유값	6.31	6.09	5.86
설명량(%)	21.04	20.32	19.55
Cronbach's $\alpha$	.93	.94	.91
Kaiser-Meyer-Olkin 표본적합성 측정 = .955			
Bartlett 구형성 검정 = 22749.164, $p < .001$			

〈표 4〉 대학생 인문역량 하위요인들의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640$ )

영역	상관계수				문항수	$M$	$SD$
	1	2	3	4			
1. 성찰역량	1.00				11	3.87	.61
2. 심미역량	.46***	1.00			10	3.47	.81
3. 리터러시역량	.60***	.47***	1.00		9	3.73	.66
4. 전체 인문역량	.81***	.84***	.82***	1.00	30	3.69	.59

\*\*\*  $p < .001$



## 2. 확인적 요인분석

대학생 인문역량의 문항 요인에 대한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30개 측정변수가 3개 이론적 변수를 반영하는지 확인하고자 각 측정변수를 해당하는 요인에만 부합되도록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잔차 간에 상관관계는 없고 3개 요인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최대우도 추정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형의 일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NFI, CFI, 그리고 이론모형이 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를 통해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모형 적합도 지수는 NFI와 CFI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높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90 이상일 경우 좋은 적합도라고 간주한다(홍세희, 2000). RMSEA의 경우 .05 이하는 좋은 적합도, .05~.08은 적합한 수준의 적합도, .10 이상은 부적절한 적합도로 판단한다(Brown & Cudeck, 1993). 분석 결과, 상대적 적합도 지수는 NFI .815, CFI .851으로 나타났으며, 절대적 적합지수인 RMSEA는 .072로,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별 측정 문항과 잠재요인 사이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최소 .604에서 최대 .846로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즉, 본 평가도구의 측정모델 적합도는 매우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측정 문항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설명하는 좋은 모델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요약은 <표 5>와 같다.

<표 5> 대학생 인문역량 진단도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N=640$ )

적합지수	$\chi^2$	df	NFI	CFI	RMSEA
측정모델	1734.038	402	.815	.851	.072

## 3. 준거 관련 타당도 분석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대학생 인문역량 평가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타당화 연구의 마지막 절차로, 개발된 대학생 인문역량 평가도구에 대한 공

인타당도를 확보하고자 준거 관련 변인으로 대학생 핵심역량을 측정하여 점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대학생 핵심역량 측정을 위해 C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핵심역량 자가진단 평가 및 인문역량 진단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40명이 진단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미완료 3명을 제외한 1,237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대학생 핵심역량 자가진단 평가도구는 총 41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만든 도구였으며, 문제해결역량, 세계시민역량, 인성윤리역량, 학문역량까지 모두 네 개의 하위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박영신 외, 2017). 각 인문역량 하위요인과 핵심역량 하위요인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생 집단 특성별 인문역량 평가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 집단별 기술통계치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인문역량 현황을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먼저, 전체 인문역량과 핵심역량의 상관분석 결과, 대학생 인문역량 및 하위요인들은 대학생 핵심역량과 고르게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학생 핵심역량 가운데 문제해결역량은 심미역량에 비해 성찰역량과 리터러시역량과 더 큰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세계시민역량과 인문역량의 하위역량들은 비슷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윤리역량은 인문역량 가운데 성찰역량과 가장 큰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문역량 역시 심미역량보다는 성찰역량과 리터러시역량과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나 자신과 공동체 사회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평가하는 성찰역량이 인성윤리역량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나타낸 점, 문자와 언어 기반의 사고력과 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리터러시 역량이 문제해결역량과 가장 큰 상관을 나타낸 점, 문화 예술에 대한 태도를 평가한 심미역량이 세계시민역량과 가장 큰 상관을 나타낸 점들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도구인 대학생 인문역량 평가도구와 핵심역량 간의 정적 상관은 도구의 타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 핵심역량과 인문역량의 상관계수 분석을 통해 인문역량 구성 요인들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표 6〉 대학생 인문역량과 대학생 핵심역량 상관관계 분석( $N=1,237$ )

		인문역량			
		성찰역량	심미역량	리터러시역량	전체 인문역량
핵심역량	문제해결역량	.551***	.355***	.670***	.614***
	세계시민역량	.400***	.400***	.414***	.492***
	인성윤리역량	.534***	.316***	.373***	.448***
	학문역량	.529***	.358***	.519***	.555***
	전체 핵심역량	.639***	.426***	.647***	.674***

\*\*\* $p<.001$

두 번째로 2018년 자발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역량 점수를 산출하여 집단별 기술통계 분석 및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하여 점수를 비교하였다. 평가 참여 학생들의 인문역량 평균 점수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112.64로 나타났다. 전공 계열별 분석에서 인문계열 전공 학생들(114.91)이 사회, 자연, 공학계열 학생들(111.95)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인문역량 평균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t(1235)=2.725$ ,  $p<.01$  또한, C대학에서 CORE 사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던 CORE 융복합 전공 학생들의 인문역량 점수를 산출하였다. C대학의 CORE 융복합 전공은 인문학적 소양을 기초로 다른 학문과의 통섭과 융합을 통해 사회적 응용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CORE 사업을 통해 개발된 교육과정이었다. CORE 융복합 전공 학생들의 인문역량 점수(119.04)는 전체 평균(112.64)과 인문계열 평균 점수(114.9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CORE 융복합 전공 학생들이 CORE 사업을 통해 교육성과로써 다른 재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인문역량 수준을 갖게 된 결과라고 간주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집단별 점수에 대한 평균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학생 인문역량 평가도구는 대학생들의 인문역량을 진단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도구라고 판단해 볼 수 있었다.

〈표 7〉 대학생 인문역량 평가 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N=1,237)

요인	CORE 융복합 (N=146)	인문계열 (N=287)	인문 외 계열 (N=950)	전체 재학생 (N=1,237)
성찰역량	45.73(5.09)	44.23(5.87)	43.61(5.86)	43.76(5.87)
심미역량	38.49(6.86)	37.05(7.22)	34.78(8.08)	35.31(7.95)
리터러시역량	34.81(4.73)	33.63(5.40)	33.54(5.51)	33.57(5.49)
전체 인문역량	119.04(13.52)	114.91(15.39)	111.95(15.94)	112.64(15.86)

※ 인문계열 전공-인문 외 계열 전공 간 인문역량 평균 차이 분석:  $t(1235)=2.725, p<.01$

## V. 결론 및 제언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대학교육 현장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역량이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길러줘야 하는 역량이 특정 분야의 취업과 관련된 수단이나 도구로써의 핵심역량이 아닌 전 생애를 통해 필요한 자율성과 주체성,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책임감과 같은 내재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학문인 인문학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본 연구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갖춰야 할 인문학적 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진단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연구위원회를 통해 대학생 인문역량의 세 가지 하위역량들이 성찰역량, 심미역량, 리터러시역량으로 정의되었으며, 자기보고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척도화된 문항들이 개발되었다.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문항 검토 및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최종 30개 문항의 대학생 인문역량 평가도구가 개발되었다. 이후 최종 타당화를 위한 본조사를 통해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적합치도, 확인적 요인분석,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우선 최종 개발된 30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0개 문항의 3개 요인에 대한 전체 설명변량은 60.90%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적합치도 계

수 산출 결과, 문항 신뢰도 역시 .91에서 .94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구성된 요인들의 문항 구조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적합도 지수들은 NFI .815, CFI .851, RMSEA .072로 대학생 인문역량 평가도구의 측정모델은 만족할만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분석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공인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생 핵심역량과의 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 인문역량 평가도구와 핵심역량 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으며 대학생 핵심역량 하위요인들과 관련 있는 인문역량 하위역량들이 더 높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C대학 재학생들의 결과를 중심으로 학생 집단별 평균 비교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인문역량 수준은 인문계열 전공 학생들이 타 계열 전공 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CORE 사업을 통해 운영된 인문 융복합 전공 과정 학생들이 전체 재학생 및 인문계열 전공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학에서 진행되는 CORE 사업의 성과로써 간주될 수도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평가도구가 대학생의 인문역량 측정도구로써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일련의 타당화 검증 결과들은 개발된 인문역량 평가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제시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대학생 인문역량 진단도구는 인문학 및 인문교육의 본질적 속성과 가치를 이루는 요인들을 측정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이는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선행 개발된 인문역량 측정 도구들과 달리 본 평가도구는 인문과 인문학의 정의적 본질을 드러내면서도 다양한 대학생 핵심역량 평가요인과 겹치지 않게 요인이 구성되었다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타당도 분석 결과를 살펴볼 때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근거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대학생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질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시대·사회적 상황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인문학 및 인문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학의 인문교육의 방향과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질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문역량 진단도구는 대학생 전반에 대한 인문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거나 인문학 교육(수업을 포함한 다양한 층위의 인문교육 프로그램) 혹은 교양교육의 성과를 특화하여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를 통하여 수업이나 프로그램 혹은 교육과정의 성과 추이를 분석함과 더불어 개선 정보를 추출, 환류시키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기보고식 진단도구가 갖는 한계점을 고려할 때,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문교육 성과에 대한 실질적 지표를 추가로 설정하여 병행 활용하는 방안을 권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나 학과 혹은 인문교육 프로그램 단위에서 인문교육의 성과로 볼 수 있는 지표를 탐색·설정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학 차원의 체계적 질 관리와 학생 개개인의 피드백을 위해서는 진단 결과의 점수 보고 체제의 보완이 요구된다. 대학, 학부, 학과 차원의 연도별 비교와 개별 학생들의 역량 수준별 진단을 위한 성적 보고 체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 개인별 위치를 진단할 수 있는 표준화 점수 체계 구안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 지원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연구논문

- 고진영·정기수, 「대학생 핵심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H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1권 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 김우영·이병승, 「인문학적 리터러시의 의미와 교육적 함의」, 『중등교육연구』 제61권 4호, 사범대학부속중등교육연구소, 2013.
- 김은주·성명희, 「대학생들의 인성발달이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적·글로벌·창의융합·봉사헌신·소통협업 역량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제40권, 한국윤리교육학회, 2016.
- 김희복·김희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문성과 인문역량 모색」,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0권 1호,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9.
- 박영신·안현아·장미숙·양길석·김경이, 「대학생 핵심역량 자가진단 평가도구 개

- 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방법연구』 제29권 4호, 한국교육방법학회, 2017.
- 박영주, 「대학 교양교육과 인문학적 소양」, 『동아인문학』 제41 권, 동아인문학회, 2017.
- 백승균, 「인문학의 개념정립」, 『철학연구』 제73 권, 대한철학회, 2000.
- 소경희, 「역량기반 교육의 교육과정사적 기반 및 자유교육적 성격 탐색」, 『교육과정연구』 제27 권 1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9.
- 소경희·강지영·한지희, 「교과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역량 모델의 가능성 탐색: 영국, 독일, 캐나다 교육과정 고찰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제23 권 3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13.
- 송미옥·김희영, 「간호대학생의 자기-성찰 및 통찰력 측정도구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간호학회지』 제25 권 1호, 대한기본간호학회, 2018.
- 송은주,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4차 산업혁명 담론과 교육의 방향 -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52호, 인문콘텐츠학회, 2019.
- 이경숙·이상욱·박민아, 「인문역량 검사도구의 개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0권 1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 이장익·김주후,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업성취도 관계성에 대한 분석연구」, 『직업교육연구』 제31 권 2호, 한국직업교육학회, 2012.
- 정연재·주소영, 「인문학적 소양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15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 정윤경·정연재·정기섭, 「균형잡힌 교양교육을 위한 I 대학 교양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13 권 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 진미석·손유미·주회정,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행정학연구』 제29권 4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11.
- 최성환, 「서양 분과학문 속의 인문학의 전개과정: 1800년대의 상황」, 『지식의 지평』 제2권, 대우재단, 2007.
- 한상우, 「인문학 기반 데이터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35 권 4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18.
- 홍세희,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2호 (2021. 05. 31)

임상』 제19권 1호, 한국심리학회, 2000.

### 단행본

정대현, 박이문, 유종호, 김치수, 김주연, 정덕애, 이규성, 최성만, 『표현 인문학: 인문학의 위기를 넘어서』, 서울: 생각의 나무, 2000.

### 번역서 및 외국논저

Brown. M.. W. & Cudeck. R.,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Bollen and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1993, pp.136-162.

McClelland, D. C.,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973, pp.1-14.

OECD,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y) Executive Summary*, Paris: OECD, 2005.

Prahalad, C.K. & Hamel, G., The Core Competence of the Corpor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1990, pp.79-91.

White, R. W.,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1959, pp.297-333.

Wray, D., *Literacy: Major themes in education(Vol. 4)*, London: Routledge Falmer, 2004.

### 기타자료

가톨릭대학교 내부보고서, 『가톨릭대학교 인문역량 진단도구 개발 연구위원회 결과보고서: 인문역량 정의 및 방향 모색』, 2017.

교육부.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기본계획』, 2015.



<Abstract>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lf-Evaluating Humanities Competency Assessment for College Students

Kim Jiwon·Park Youngshin·Yang Kilseok·Kim Kyungy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n assessment tools for self-evaluating Humanities Competency for college students. Prior to the questionnaires development stage, 62 preliminary question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definition of university students' humanities competencies and their sub-factors so as not to overlap with the concepts of the core competencies already in use. After conducting a preliminary survey involving 426 undergraduate students at C University, 30 questions were select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modifying proces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640 people to make the 30 question items constructed from the preliminary survey, and the final questionnaires were finaliz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trinsic consistency coefficients(Cronbach's  $\alpha$ ), and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lso, the final survey with 30 items was administered to 1,237 undergraduates and correla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Evidences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ggested valid constructs with acceptable every fit indices. Results from reliabilities test were satisfactory. Also, good concurrent validity was shown through the correlation between this developed self-evaluating humanities competency and core competency assessment for college students. A total of three factors defined in the humanities competency assessment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were found to be reasonable: reflection competence, aesthetic competence, and literacy competence. The reliability of the 30 statements was very good and the construct validity was satisfactory. The overall reliability coefficient was .96, and the conformit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all the fit indices were very good. The self-evaluating humanities competency assessment for college students, which was developed to allow students to measure their level of humanities on their own, was proved to be a valid evaluation tool for assessment.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discussed for further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2호 (2021. 05. 31)

studies.

**Keywords** : humanities competency, reflection competence, aesthetic competence,  
literacy competence, core competency

논 문 접 수 일 : 2021년 04월 05일  
심 사 (수 정) 일 : 2021년 04월 25일  
게 재 확 정 일 : 2021년 05월 23일